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3. 23(월)

산업부 장관, 사우디, UAE, 카타르, EU, 필리핀 자원 담당 장관들과 릴레이 회담

- 글로벌 원유·천연가스 수급 및 자원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방안 논의 -
- 사우디·UAE 대체 항로 원유 확보와 카타르 천연가스 도입 안정화 지원 요청 -

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, ‘인도-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(3.14(토)~15(일), 일본 도쿄)’ 계기 미국, 일본 등과 양자회담*에 이어, ①사우디(3.9(월)), ②UAE(3.11(수)), ③카타르(3.20(금)), ④EU(3.20(금)), ⑤필리핀(3.23(월)) 등 주요국의 장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(화상 또는 유선)을 가졌다.

* 인도-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: ①미국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, ②일본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, ③호주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, ④뉴질랜드사이먼 글렌 와츠 에너지부 장관, ⑤베트남응우옌 황 룡 산업무역부 차관 등

김 장관은 석유·가스 등 자원 안보가 단일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,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원유 도입부터 석유 제품 수출에 걸친 글로벌 자원 안보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< 우리나라 원유·LNG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 현황('25년 기준, 무역협회 통계) >

◆ 원유수입(백만배럴, %):	①사우디(345.4, 32.6), ②미국(174.9, 17.0), ③UAE(117.0, 11.4)
	④쿠웨이트(106.9, 10.4), ⑤이라크(87.4, 8.5), ⑥카타르(44.9, 4.4), ⑦브라질(30.9, 3.0)
◆ LNG수입(백만톤, %):	①호주(14.7, 31.4), ②말레이시아(7.5, 16.1), ③카타르(7.0, 14.9)
	④미국(4.4, 9.4), ⑤러시아(2.5, 5.3), ⑥인도네시아(2.1, 4.4), ⑦오만(1.9, 4.1)
◆ 석유제품수출(백만톤, %):	①호주(10.1, 16.5), ②싱가포르(8.5, 13.2), ③미국(7.5, 11.5)
	④일본(7.4, 11.4), ⑤필리핀(5.3, 8.2), ⑥중국(3.8, 5.8), ⑦뉴질랜드(3.3, 5.1)

김 장관은 각 국 장관들과 면담 계기에 최근 중동상황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유례없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.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LNG의 약 80% 이상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기 의식이 높다고 밝혔다.

또한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%가 중동産이며 이 중 95%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석유제품의 중요 공급지인 한국의 원유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, 주요 수출대상국의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.

먼저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1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(3.9(월))과 3위국인 UAE 아흐메드 알 자베르 석유공사 사장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(3.11(수))에게 우리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사우디 얀부(Yanbu)항, UAE 푸자이라(Fujairah)항 등을 통해 원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

이어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국인 카타르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(3.20(금))에게 그 동안 카타르가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덕분에 국내 가스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. 특히, 이란의 카타르 라스 라판(Ras Laffan) LNG 생산 시설 파손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있더라도 한국에 대한 LNG 장기도입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에게 당부하였다.

한편, 김 장관은 댄 요르겐슨 EU 에너지 집행위원(3.20(금))에게 국제에너지 기구(IEA)가 결정한 총 4.3억 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,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르겐슨 집행위원에게 감사를 표했다. 아울러 과거 글로벌 원유 수급 위기 당시, 한국이 총 5차례 공동 비축유 방출에 동참했던 점을 상기하며,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역대 최대 물량인 2,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임을 밝혔다.

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**샤론 가린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**(3.23(월))에게 최근 한국 정부가 **국내 석유제품 시장 안정**을 위해 **한시적인 최고 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**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 특히 이번 **수출 관리 조치**는 전면 통제가 아니라 **예년과 동일한 수준 내에서 수출**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함으로써, **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 유출**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였다.

김 장관은 이번 각 국 장관들과의 릴레이 양자회담을 마무리하며 “대한민국은 **글로벌 산업·자원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 국가**로서, **국내 수급 및 민생 안정**은 물론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**부정적 영향도 최소화**할 수 있도록 **중요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**이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영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	신승일 (044-203-5253)
	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양정화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장선화 (044-203-5218)
	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한주현 (044-203-52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배 (044-203-5216)
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양정식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	하정욱 (044-203-5666)
	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중엽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	지혜인 (044-203-5724)
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민문기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소라 (044-203-5679)